

< 체험 후기 >

- UTCC(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

선박해양공학과

나도형

학교의 프로그램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수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신 MIRO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힘 써주시고, 수업내용도 천천히 설명해주시고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수업해주셨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얼마든지 물어봐달라고 하셨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친절하게 답장주셨다. 그 외에 TOMAS 교수님 수업 또한 아주 좋았다. 그룹으로 결성해 친환경 사업을 ASEAN 국가 중에 사업을 설립하는거였는데 팀원들과 친환경 사업 아이디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건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직접 조원들과 찾아보며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고나니까 엄청 뿌듯하고 영어로 관련된 자료조사에 찾는 것도 익숙해졌다. 수업도 동작과 함께 천천히 말씀해주셔서 수업 내용 이해가 덕분에 수월했다. 마지막 MIRO 교수님의 조별과제에 많은 시간 투자를하며 힘들었다.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외에 국가에 대한 소개, 부패과정들을 발표를 준비하면 됐다. 내 전공과 연관이 없어서 처음엔 이것들에 대해 자료조사하며 막막하였지만 조원들과 같이 자료 찾아보고 토론해보고 많은 시간을 가져가며 발표를 마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다.

투어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다. 방콕에 있는 유명한 사원들이 많은데 직접 가기에는 교통이 어렵고 방문 비용도 들지만, 투어를 통해 무료로 버스 대여해주시고 사원입장도 무료로 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교환학생 도우미 같은 버디들의 도움으로 이 사원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면서 투어를 하니 투어의 질이 높아졌다. 그 외에 섬 투어, 디너크루즈투어 여러가지를 했다. 그 중에 레이저 태그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이 때,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회사 방문으로는 은행방문, 태국회사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해주셔서 기업방문을 하면서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추천해주고 싶고 더더욱 저도 해외에 학교체험활동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